

灯火可親之節

금세기 초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성취한 과학 문명은 그 이전 수천년의 역사가 이룬 것보다도 훨씬 위대한 것이어서 가히 현란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과학 문명의 발달이 너무나 급속하기 때문에 이제는 불과 1년 앞의 변칙도 짐작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페니실린을 발명하여 수천만명의 목숨을 살린 인간이 수소탄을 발명하여 수억의 목숨을 벗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해결할 길이 아직은 없다. 히틀러, 구소라니, 스탈린과 같은 악의 화신들이 칼을 휘두른 것도 먼 옛날이 아닌 바로 몇 십년 전의 일이다.

물질 문명은 발달했다지만 인류의 정신 문명은 동자와 스크라테스 때보다 더 진보된 것이 없으며, 오히려 퇴보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맥아더 원수가 갈파했듯이 인류 상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것이지 과학적인 것은 아니다.

근래에 배금(拜金)주의, 물질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인간성 되찾기, 정신 혁신 등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경영학의 요체도 따지고 보면 원만한 인간성과 건전한 정신 찾기에 그 결론이 귀착되고 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은 물질과 과학만이 만능이 아니라는 진리를 포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스티븐슨의 저 유명한 소설 "재킬 박사와 하이드씨"는 위대한 과학자, 지성인에게서 휴머니티가 결여될 경우의 가공할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말에 "외공"이란 어휘가 있거니와, "기술자"라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외공을 발견하기가 쉬운 것이 사실이다. 즉 건축을 전공한 사람은 건축 외의 분야는 흥미도 없고, 모른다 하는 식의 사고 방식이다. 그러니 당연히 "외공"이란 말을 듣게 되고 "무디 건조하다"는 평도 듣게 되기 쉽다.

그러나 "기술자"가 "외공"이 될 필요는 조금도 없지 않은가? 일례로 바이올린이 없는, 철학 사색이 없는 아인슈타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대부분 바야흐로 "등불 가실"의 계절이다. 계절의 특성 다 같이 안온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여백 종류의 서적들을 밤 늦도록 읽어 보기도 한 계절이다.

책 중에서도 건축, 전기, 화학, 기계와 같이 자기 전공 서적도 좋거니와 우리의 정서 생활, 정신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들을 곁들이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구태여 주머니 돈을 털어 서적가를 기웃거리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어느 사람의 집에든 외대한 인류의 스승들이 남긴 책들, 선인들의 경험에서 나온 철학을 담은 책들이 몇 권 정도 없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몇 번 보고 덮어 두었거나 어느 구석에 처박아 놓았거나 또는 서재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을 것이다.

그 책이 혹은 할무드인지 모르겠다. 혹은 무파리사드, 사서 삼경 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우리와 정신을 살찌게 하고 공해에 찌든 머리를 순화시키는 그러한 책들을 이 좁은 계절에는 가까이해 보자. 등불빛이 한없이 정답게 느껴지는 오즈음에 말이다.